

† 찬미예수님

우리는 미사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 안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예수님의 현존을 바로 오늘의 내 삶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나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7년 6월 18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주임신부 이야기

6월 예수성심성월 잘 보내고 있나요? 솔직히 예수성심성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지요? ^^ 그냥 그런 것이 있나보다 정도? 왜 우리 마음에 이 단어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또는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 삶에 절대가 아닌 옵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남거나 심심할 때 또는 마음이 힘들 때만 오는 곳이죠. 일로 바쁘거나 친구를 만나야 하거나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일단 주일 미사는 뒤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에잇, 신부님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신앙은 삶에서 첫번째이며, 근본적인 것인가? 하느님의 은총을 정말 믿는가? 나의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등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성찰이 없이는 성실한 신앙인으로 거듭 날 수 없고, 늘 환경(상황)에 따라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나 친교를 위해 성당에 오는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쯤은 젊은 시절에 신앙 생활의 근본 목적과 하느님을 향한 자세는 어떠해야하는지를 철저히 고민하고 정립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아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숨칠 수 있음은 그분 사랑의 선물이며, 살아 있는 모든 순간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토마스 머튼)

=====

## 2017년 6월 둘째주 공지입니다.

### [지난행사]

### 단체장 간담회 (6/11 주일)

지난 주일 (6/11) 신부님과 각 단체장(회장, 부회장)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남들과 몇가지 내용 공유합니다.

사제는 주교님에 의해 특별한 목적과 함께 각 공동체에 파견됩니다. 주임 신부님의 <2020 비전 목표>는 주교님의 파견 목적에 따른 신부님의 사목 방향으로, 단체장들은 신부님의 대리인/협력자로서 신부님을 도와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제의 협조자인 단체장들은 기도, 평일미사, 복음을 가까이하고 교리를 익힘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께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구성원/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신부님과의 사전 상의를 통해 사목방향과 부합하게 단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2020 비전 목표>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2020 비전 목표>**

1.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2.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비전을 위한 실천사항>**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위의 목표와 실천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하모니가 다 함께 신부님의 사목방향에 동참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나눔 봉사자 (6/11 주일)**

전진영 베로니카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보 나눔 봉사자 (6/18 주일)**

홍상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보 나눔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성서모임 봉사자 모임 (6/17 토)**

창세기/탈출기/마르코 복음 성서모임 중 하나라도 마친 분들중에 말씀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 바랍니다.

일시: 6월 17일 토, 오후 2시-3시

장소: 교육관 107호실

**만남의 성경모임 (6/17 토)**

조 마오로 수녀님과 함께하는 루카복음 만남의 성경모임이 6/17 토요일 오후 4시에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모임 후 수녀님, 주임 신부님과 함께 저녁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6월 17일 토, 오후 4시-6시 (2시-4시에서 변경 되었습니다.)

장소: 소망방 (사제관 건너방)

**장익 가밀로 형제님의 닭찜 점심식사 (6/18 주일)**

주일 교중미사 후 장 익 가밀로 형제님이 하모니를 위해 닭찜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회합은 식사전 간단히 회합실에서, 또는 식사중 사랑방에서 진행 하겠습니다. 장익 가밀로 형제님 감사합니다!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6/22 목)**

매달 네번째 목요일 오후 4시에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6/22 목 오후 4시(시작) - 7시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가톨릭 성서 모임 가족 일일교육 (7/2 주일)**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모임을 하나라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7/2일 주일 교중미사 후에 일일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6/25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7월 2일 주일 점심식사 후 - 오후 6시 (점심 제공)

장소: 교육관 106호실

**헬프 데스크 (7월 시작 예정)**

예전부터 언급했던, 어르신들께 영문편지 내용을 알려드리는 등 당일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헬프 데스크 봉사를 하모니, 트락회와 다른 단체들이 돌아가며 매 주일 교중미사 후 약 1시간씩 봉사합니다. 7월을 시작으로, 하모니 2명의 봉사자가 매달 한번씩 봉사하게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회장단에게 알려주세요.

### 하계 수련회 일정 (9월 중 2 박 3 일)

성당 행사/영어미사 제외, 신부님 일정 확인 후, 하계 수련회 날짜를 9/8(금)-9/10(일), 또는 9/15(금)-9/1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분들은 미리 날짜 비워주세요.

### 도서실 봉사자 모집

성당에서 아침 8시 미사 후 30분동안, 또는 11시 교중미사 전 30분동안 도서실 (교육관 2층, 하모니 회합실 건너방)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의향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새신자 소개 -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이종덕(예비신자), 이상희 (예비신자) 형제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